

2021 No.75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인재 육성



# 방과후학교 · 돌봄 온라인 Newsletter

발행인 : 류방란 | 편집인 : 이희현 | 편집담당 : 고현진

## 01 전문가칼럼

아동 최우선의 돌봄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김아래 미)

## 02 현장 속 방과후학교 · 돌봄

- '늘 봄처럼 따뜻함'이 있는 새로운 돌봄의 시작  
경상남도교육청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장학사 | 정종성)
- 영진사이버대학교의 초등돌봄교실 놀이상담 프로그램  
개발, 운영  
(영진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사양성센터장 | 변외진)
- 영천여고 에듀카드 예비교사들의 '사랑 Dream'  
초등돌봄지원 활동  
(영천여자고등학교 에듀카드 지도교사 | 손효주)

## 03 방과후학교 · 돌봄 소식

- 주요 언론기사
- 주요 연구결과
- 주요 입법동향 및 정보

## 04 알림

- <방과후학교·돌봄 온라인 뉴스레터> 통권 76호 원고 모집



'방과후학교 · 돌봄 온라인 뉴스레터'를 받아보고자 하시는 분은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 (www.afterschool.go.kr)에서 뉴스레터  
구독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독신청 : [www.afterschool.go.kr](http://www.afterschool.go.kr) Click!

## 아동 최우선의 돌봄체계 구축이 시급하다<sup>1)</sup>



◆ 최근 아동돌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대상은 초등학령기 아동이다. 왜냐하면 많은 초등학령기 아동이 필요한 돌봄을 제때에 못 받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성 향상과 보육의 질 개선

이라는 정책과제가 있기는 하나, 3-5세 이용률이 93.7%<sup>2)</sup>될 정도로 기본적인 돌봄수요는 상당히 충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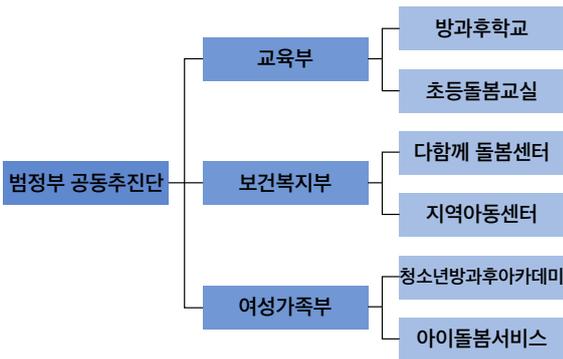
그러나 2020년 온종일돌봄수요조사에 따르면 초등학령기 아동은 45.1%가 돌봄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률은 12.8%에 그치고 있다<sup>3)</sup>. 즉, 32.3% 아동이 학교 끝나고 갈 곳이 없어 혼자 집에 있거나 학원을 옮겨 다니며 시간을 보낸다. 수요대비 공급이 3분의 1에 불과하며, 사각지대가 커도 너무 크다. 주양육자들은 평균 7시에 집에 오는데 가장 많은 아동이 이용하는 초등돌봄교실의 오후돌봄은 5시에 끝이 난다. 어린이집은 7시에 끝나서 관찮았는데, 아이가 초등학교에 가면 돌봄 방법이 없어 막막해지는 상황이 된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는 2018년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에 대한 계획을 공표하고 다함께돌봄센터 및 초등돌봄교실의 확충, 지역아동센터의 공공성 강화, 학교돌봄터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초등돌봄이용률은 약 10%에서 약13%로 증가폭은 3%에 그치고 있으며, 기존 체계의 변화는 크지 않다. 수요대비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은 상당히 자명해 보이는데 왜 초등학령기 아동돌봄체계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현재의 초등학령기 아동돌봄체계가 공급자 중심이라는 데에 있다. 초등학령기 아동돌봄은 뉴스에 많이 오르내리긴 하나, 대체적으로 공급자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김아래미

얘기들이 주를 이룬다. 서비스의 질을 종사자가 결정하므로 종사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이긴 하다. 그러나 부처 간의 협력체계나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논의하기에 앞서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체계 구축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초등돌봄과 관련된 논의는 아동을 위해서라는 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기는 하나 실제 주장은 공급자들의 요구사항이 대부분이다. 어떻게 수요-공급 격차를 메울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고, 어떻게 아동생활시간에 맞는 오후돌봄체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지자체와 학교는 서로 돌봄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고, 다른 돌봄체계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은 편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한계는 수요-공급 격차이다. 앞서 수요-공급 격차가 32.3%라 하였으나, 돌봄육구가 높은 맞벌이가구 비중인 54.8%<sup>4)</sup>를 기준으로 하면 그 격차는 42.8%로 커진다. 아동수요는 온종일돌봄수요조사 결과와 맞벌이가구 비중이 모두 정확성에 한계가 있어, 보다 면밀히 수요를 추계하는 작업이 향후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처럼 돌봄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는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책무가 있는 정부, 지자체, 학교, 관련 종사자들이 아동이 돌봄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명확히 인식하고 아동에게 필요한 돌봄환경을 만드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그걸 전제로 역할분담과 노동환경 개선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두 번째 단계는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인한 서비스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이다. 현재 초등학령기 아동돌봄서비스는 3개 부처 5개 돌봄서비스로 분산되어 있는데, 각 부처에서 사업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아동돌봄서비스가 적절히 연계조정되지 못하고 행·재정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야기하고 있다. 아동돌봄체계의 개선방안으로 학교돌봄과 지역사회돌봄의 협력 강화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돌봄과 지역사회돌봄은 각각 진행된다. 이로 인해 아동 수요 연계, 협력 사업 등과 같은 협력수준은 매우 낮은 편이다. 예를 들어, 초등돌봄교실 신청인원이 많아 20명의 대기인원이 있을 때 그 대기인원을 마을돌봄시설로 연계해준다면 아동은 서비스 공백없이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나, 현재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코로나19상황에서 긴급돌봄에 있어서 학교와 마을이 시간과 대상에 있어 역할분담하는 방안을 통해 돌봄사각지대를 줄이고 종사자 부담을 줄일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도 드물다. 이러한 분절적 서비스 전달체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의 몫이다.



↑ 초등학령기 아동돌봄 부처-돌봄체계

셋째, 돌봄체계가 복잡하여 서비스 접근성이 낮다. 5개 서비스가 명칭, 대상연령, 운영방식 등이 모두 달라서 아동과 주양육자 입장에서 돌봄체계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온종일 돌봄수요조사에서 초등돌봄교실 선호도가 약 70% 이상 나오는 이유는 높은 인지도와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이름도 다양해서 파악이 어렵지만, 서비스 대상 연령도 다르기 때문에

알기가 쉽지 않다. 초등돌봄교실과 다함께돌봄센터는 6-12세를 대상으로 하나,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등학령기 아동이 모두 이용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초4-중3이다.

또한, 소득기준이 있는 곳(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있고, 없는 곳(다함께돌봄센터, 초등돌봄교실, 아이돌봄서비스)도 있다. 운영시간, 입출입가능, 이용료, 서비스내용도 모두 다르다. 이러한 낮은 서비스 접근성은 아동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아동돌봄 서비스 통합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자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하여 이러한 복잡한 체계가 10년 이상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넷째, 아동수요를 배제한 운영방식이 문제이다. 초등학령기 아동은 학원을 다니는 편인데 초등돌봄교실은 입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기 어렵고,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도 상시돌봄 위주라 다른 외부 활동이 쉽지 않다. 즉, 상시와 일시돌봄이 가능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제외하고는 아동생활시간에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초등돌봄교실의 오후돌봄 5시 종료 또한 아동생활시간과 맞지 않는다. 물론 저녁돌봄도 있지만 저녁돌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학교의 적극적 노력이 없고, 이용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저녁돌봄을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적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저소득가구 위주로 이용하게 되어 있다보니 낙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다섯째, 돌봄종사자의 사회적 인정 수준이 낮다. 돌봄종사자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로 아동돌봄 전문가이나, 보상체계는 그 직무역량과 직무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본급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도 못 미치기도 하고, 교사하고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호봉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력이

쌓여도 임금이 그대로여서 직무동기를 부여하기 어렵다. 교사와 보상체계가 동일해야 한다는 주장은 아니나, 교사 보상체계에 비하여 큰 차이가 나다보니 유능한 인력 유입도 어렵고 종사자들 사기도 저하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돌봄은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발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인정수준이 실제 가치에 맞게 상향되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들을 획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발전방안의 기본 전제는 '아동 최상 이익의 원칙 준수'임을 분명히 해둔다. 이를 전제로 모든 아동이 필요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동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서비스의 양을 확대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초등학교 아동돌봄 서비스 이용인원을 2017년 33만명에서 22년까지 53만명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고, 서울시는 2022년까지 맞벌이가구 아동의 30%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실제 맞벌이가구가 50%를 초과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 최소 40%의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양이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부족한 지역사회돌봄 자원의 양을 더 적극적으로 늘려야 하고, 초등학교 아동이 일시적으로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문화여가시설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아동돌봄서비스 통합 및 연계 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온종일 돌봄특별위원회(사회부총리가 위원장, 최소 3인 이상의 상설 기구)를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의 돌봄협의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 기존 중앙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성을 반영한 돌봄체계를 구성하고 학교 및 마을돌봄을 연계조정하게 해야 한다. 기초자치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지원청, 학교, 마을돌봄시설이 참여하는 온종일돌봄협의회를 운영해야 한다. 온종일돌봄협의회는 지자체 아동돌봄계획

수립, 아동 수요 연계, 협력 사업 실시,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온종일돌봄협의회는 광역온종일돌봄협의회와 긴밀히 연계하여 자원을 확보하고, 마을온종일돌봄협의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 유형을 돌봄센터(안)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sup>6)</sup>. '영유아 돌봄'하면 '어린이집'이 떠오르듯 '초등학교 아동돌봄'하면 '돌봄센터'만 떠오르도록 명칭, 연령(6-12세), 이용대상, 운영시간(기본돌봄 7시까지 운영), 수익자부담의 원칙, 서비스 운영방식 등을 통일해야 한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는 이용대상을 중학생으로 변경하고, 지역아동센터 중 일부는 중고등 전용으로 변경하고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6-12세 아동이어야 한다. 이용대상은 보편성을 적용하여 소득기준이나 맞벌이에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용료를 내게 하되 저소득가구 아동의 이용료는 면제해주는 방식을 취하여 시설별로 생기는 낙인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서비스기능은 돌봄기능에 집중해야 하며, 모두 아동 수요에 맞는 운영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넷째, 운영방식에 있어서 아동생활시간과 다양한 돌봄 수요를 고려하여 센터 내 서비스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돌봄센터로 통합하되 센터별로 서비스를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아동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모든 돌봄센터는 상시·일시·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입출입을 가능하게 하며, 센터 간 이동을 허용해야 한다. 즉, 유연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그 외 장애아동, 학교밖아동, 이주아동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동들에게도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아동육구를 기반으로 한 돌봄센터 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아침돌봄은 돌봄시간이 이르고 짧으므로 학교와 아이돌봄서비스가 담당하고, 저녁돌봄육구는 그 육구가 아주 크지 않으므로 지역별로 학교와 마을의 돌봄센터

일부가 담당할 수 있다. 아픈 아이는 가정 내 돌봄이 적절하므로 아동돌봄서비스가 담당해주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돌봄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상향 평준화하여,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능한 종사자를 유인할 수 있게 되며, 직무동기도 향상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돌봄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학교 및 마을 돌봄종사자 간의 일자리 질을 상향 평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발전방안을 시행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할 기반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관련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작년에 발의된 온종일돌봄특별법과 같은 법의 제정을 통해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리더십 및 예산 변화 등과 같은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아동돌봄 체계의 대전환이 추진되게 해야 한다. 둘째, 통합적 아동돌봄서비스 체계 운영을 위한 통합재정이 필요하다. 기존에 아동돌봄에 사용되었던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건복지부 예산, 여성가족부 청소년육성기금을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돌봄계획에 따라 재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아동돌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돌봄의 사회적 가치 인정을 기반으로 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타협이 필요하다. 현재 아동돌봄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 이 때문에 통합적 아동돌봄서비스 구축과 서비스 확대를 위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아동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아동 최상의 이익을 기반으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타협이 있어야만 대전환이 가능한 상황이다.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노력은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 이슈를 대타협으로 바꿀 촉진요인이 될 것이다. 넷째, 아동돌봄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돌봄센터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대상의 보편성과 시설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발달의 관점에서

아동에게 교육과 돌봄이 둘 다 필요하다는 정보를 알려 많은 아이들에게 놀이와 쉼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구로서 학교와 마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돌봄은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곳으로 인식되나 돌봄이 아이들을 위한 곳으로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초등학령기 아동돌봄은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지체 없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아동이 교육과 돌봄을 동시에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는 양질의 환경이 빠르게 마련될 수 있도록, 모두가 아동이익을 최우선으로 논의하고 결단을 내려주시길 당부드린다.

- 1) 본 발제문은 2021년 5월 28일 열린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한 아동돌봄서비스 대전환” 토론회의 발제문을 요약·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 2) 육아정책연구소(2019). 영유아 가구의 육아서비스 수요 및 대응방안2.
- 3)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21). 우리동네키움센터 일반융합형 매뉴얼.
- 4) 통계청(2021)의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이며, 맞벌이가구 중 7-12세 아동이 있는 맞벌이가구의 비율이다.
- 5) 아동수요는 온종일돌봄수요조사 결과와 맞벌이가구 비중이 모두 정확성에 한계가 있어, 보다 면밀히 수요를 추계하는 작업이 향후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 6) 지역특성에 따라 특화형 돌봄센터가 필요한 경우, 돌봄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센터를 유형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거점형, 융합형, 일반형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사례를 참고해볼 수 있을 것이다.



## ‘늘 봄처럼 따뜻함이 있는 새로운 돌봄의 시작’

경상남도교육청 거점통합돌봄센터 

●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장학사 | 정종성

### 경상남도교육청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을 소개 합니다.

#### ❖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왜’ 설립 되었는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가정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에서는 자녀 돌봄을 가장 힘들어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1년을 경남교육 대전환의 해로 설정하고 ‘**교육복지의 대전환**’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바로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의 설립입니다.

#### ❖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이란?



(뜻) 늘 본다. 늘 봄처럼 따뜻함이 있는 곳

(C) 새로 태어난 새싹을 키우듯이 항상 지켜보고 마주보는 부모의 모습



은

공적 돌봄 확대 및 인근학교 간 돌봄 공동 수요 충족을 목적으로 양질의 돌봄 서비스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거점돌봄기관



특징

- 초등 4학년까지 돌봄이용 대상 확대 • 평일 20시까지 연장 운영 • 방학중 8시~20시까지 운영
- 토요돌봄, 긴급(수시 및 틈새) 돌봄 운영 • 침 및 놀이 등 창의성이 어우러진 공간 구성
- 무료 제공 서비스(돌봄교실 단체 프로그램 및 급간식 무료)
- 안전한 돌봄 운영(통학차량 제공, 안심알리미서비스, 전문상담교사, 배움터지킴이 등 자원봉사자, 방역 도우미 및 감염병 예방 기기 운영)

❖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은 어떤 모습인가?**

- 올해 3월 1일 개원한 늘봄 센터는 돌봄교실 6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실 8실, 놀이실 4실(늘봄터 1실), 독서계단 1실, 외부 테라스 6곳 등 편안하고 쾌적한 돌봄이 되도록 시설을 완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돌봄교실**은 현재 명서초등학교 및 인근의 10개교 학생이 이용하며, 저녁돌봄(20시까지)과 토요일돌봄(13시까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정기 이용 외에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간과 시간을 정하여 수시·틈새 돌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돌봄교실

- ▶ 특히 실내외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야외 테라스**는 폴딩 도어를 활용한 가변 공간으로 시야가 확보된 안전한 복도형 놀이실을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무엇보다 따뜻하고 안전하게 우리 아이들이 쉽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였습니다.

▶ 독서계단은 학생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독서계단

▶ 놀봄터는 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입니다.



↑ 놀봄터

❖ 놀봄에서는 다양한 돌봄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봄교실에서는 개인활동, 단체활동, 휴식 등 기본적인 돌봄 활동 이외에 외부강사가 제공하는 단체프로그램이 매일 다른 주제로 주 5회 운영되고 무료 급·간식이 지원 됩니다.



↑ 단체프로그램



↑ 급간식

❖ 학생들의 재능과 끼를 살리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스포츠, 음악 등 11개 영역의 24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댄스



로봇과학



컴퓨터



클레이



피아노



바이올린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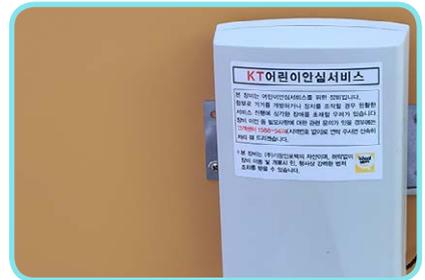
◆ 늘봄에서는 무엇보다 안전한 돌봄을 위해서 통학차량운행, 등하원 안심 알림 서비스, 사각지대 없는 CCTV 설치, 안전 지킴이와 전문 상담사 배치로 시설환경 안전과 정서적 안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 지원인력 위촉과 감염병 예방 기기를 설치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통학버스



↑ CCTV



↑ 등하원 안심 알림 서비스



↑ 전문상담사



↑ 방역(방역도우미, 손소독 및 발열체크)



↑ 배움터지킴이

###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의 내일

◆ 늘봄은 교육청이 주관하고,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거점형태로 제공하는 전국 최초의 모델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 돌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려는 교육청의 의지를 담은 모델입니다.

앞으로 늘봄은 돌봄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정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하며, 우수한 돌봄 단체프로그램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돌봄의 활성화를 이끌어 낼 새로운 형태의 돌봄!

경상남도교육청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이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 영진사이버대학교의 초등돌봄교실 놀이상담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영진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사양성센터장 | 변 외 진



### 너하고 안 놀아

◆ 아이들은 놀면서 “너하고 안 놀아”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한다. 그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논다. 아이들이 안 논다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술래가 자기만 잡으러 온다고 토라져서 집에 가는 경우, 자기가 졌을 때는 다시 한번 더 하자고 떼를 쓰는 경우, 이기고 싶어 계속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경우, 그것도 못 하나며 잘난 척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 어른들은 이런 상황을

알게 되면, 흔히 ‘그건 네가 잘못된 거야, ‘친구니까 참아야지’,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라는 잘잘못의 판단과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정작 아이들이 어떤 기분이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릴 기회는 주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아이들 싸움에 어른들의 일방적 판단과 해결 제시가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그 어른들이 미웠던가? 그 억울하고 속상했던 아이가 성인이 되어 그 자신은 과연 어릴 적 내가 미워했던 그런 어른이 아닌, 다른 어른이 되었는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함께 고민해 보면 좋겠다. 아이들의 속상한, 화난, 불편한 여러 마음을 이해해주고 아이들 스스로 갈등상황을 해결할 힘이 있음을 알려주는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가? 그런 어른이 되어줄 수 있다. 우리가 그 방법을 배운다면 할 수 있다. 더 욕심을 내고 싶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처럼 어른이 되어서 그 방법을 뒤늦게 배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고스란히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에 담아내고 싶었다.

흔히 대인관계에서 겪는 많은 갈등의 원인을 생각 차이라고 한다. 개인이 지닌 생각은 그 개인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것이며, 우리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각자 다르게 경험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생각 차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가진 생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서로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개인의 생각을 물어주고, 그 생각과 관련된 감정(욕구)을 인식하여 건강하게 표현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자기만의 감정(욕구)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감정(행동)조절력,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생각 알아차리기-감정(느낌, 마음, 욕구) 표현하기-욕구 충족을 위한 행동하기를 어릴 적부터 익히도록 돕기 위해 아이들에게 친숙한 놀이를 매개로 한 ‘놀이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 대구지역 교육지원청 '지역대학 연계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운영' 공모에 지원

영진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사양성센터에서 개발한 놀이상담 프로그램으로 대구지역 교육지원청에서 공모한 '지역대학 연계 초등돌봄교실 운영 사업'에 지원하였다. 지역대학 연계 초등돌봄교실 운영 사업은 교육부 국가시책사업 '방과후돌봄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대학의 자원을 활용해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초등학생들의 정서 함양 및 돌봄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추진되는 공모사업이다. 본교에서 개발한 놀이상담 프로그램이 2020년에 이어 2021년, 3개(대구광역시 달성, 남부, 동부) 교육지원청에서 초등돌봄교실 운영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현재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실시되고있다.

### 영진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성장과 발달을 조력하는 생활·현장 밀착형 상담전문가 양성

본교 상담심리학과에서는 치료중심, 예방중심 상담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성장과 발달을 조력하는 생활·현장 밀착형 상담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2~3회 상담실제(놀이치료) 단기교육과정을 실시하여 직업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외 가족상담사, 동화상담사, 모래놀이상담사, 타로상담사, 푸드상담사, 원예상담사 등의 다양한 분야의 상담전문가를 배출하였다. 상담심리학과에서 양성한 상담전문인력들로 구성된 본교 부설 연구소 상담심리사양성센터의 연구원들이 이번 초등 돌봄교실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여 초등돌봄교실 강사로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놀이상담 프로그램 수련과정을 이수한 상담심리학과 재학생들이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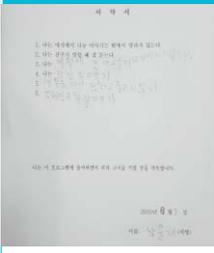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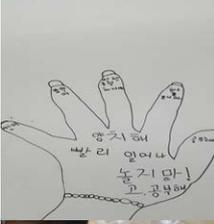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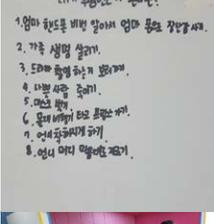
### 상담심리사양성센터에서 개발한 초등돌봄교실 5개 놀이상담 프로그램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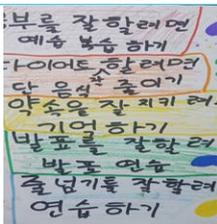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 감정, 욕구를 '알아차리기-표현하기-행동하기'의 3단계를 익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놀이매체로 푸드, 게임, 별자리, 도서, 원예를 선정하여 5개 놀이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교에서 개발한 초등돌봄교실의 5개 놀이상담 프로그램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명	놀이매체	목적
남남찹찹, 푸드 놀이터	푸드	1. 오감 자극, 감각 놀이로 인지적 발달 촉진 2. 내적 즐거움, 잠재적 창의성 발휘 3. 언어적 자기표현 능력 향상
생각 UP, 놀이 게임	게임	1. 긍정 정서 경험 2. 감정과 바람을 언어적으로 표현 3. 감정조절력, 자기주장 기술 습득
별에서 온 친구들과 꿈 찾기	별자리	1. 자신의 강점과 약점 이해 2. 자신과 타인의 차이 이해, 수용 3.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행동적 노력
"북(book)적 북(book)적, 책 놀이터"	도서	1. 경청하기 2. 책 속 등장인물과 동일시로 자기이해 3. 문제해결력 향상
나를 꽃처럼 가꾸는 힘 키우기!	원예	1. 자연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 표현 2. 나의 소망 나무 만들기 3. 자기 격려 훈련

**초등돌봄교실에서 "남남찹찹, 푸드 놀이터" 프로그램 운영 사례**

❖ 초등돌봄교실 프로그램 실제 운영은 주 1~2회, 1차시 2회기, 3~4주로 신청한 학교의 요청에 맞추어 유연하게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강사는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 감정, 욕구를 구별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도와주며, 상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어주기, 반응하기 등의 경청 태도를 익히도록 격려해 주었다.

회기	주요 활동	놀이 과정
1회기	<서약서 작성> 아이들이 규칙을 정할 때, 그 규칙을 정하고 싶은 이유를 물어주고 규칙으로 채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이들이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함	 <p>돌아다니지 않기,                      시끄럽게 떠들지 않기,                      질문 있을 때 손 들고 말하기,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기 등을 집단규칙으로 정함</p>
2회기	<가면 무도회> 현재의 감정과 자기소개를 뽀뿌기 가면 놀이로 진행함	 <p>규칙 정하는 건 처음이지만 재미있었다/                      푸드 프로그램이 뭔지 몰라 처음에는 당황했다/                      재미있을 것 같아 웃고 있다/ 가족으로 자신을                      소개 등</p>
3회기	<자주 듣는 말> 누구에게 어떤 말을 자주 듣는지 찾아서 표현함	 <p>씻어, 밥 먹어, 양치해,                      반찬 투정하지 마,                      핸드폰 보지 마,                      공부해라,                      빨리 일어나,                      놀지 말고 공부해 등</p>
4회기	<표정 쿠키 벽화> 자주 듣는 말에서 느끼는 감정을 쿠키에 표현함	 <p>~하라고 시킬 때, 슬픔/                      사랑해, 놀자는 말을 들을 때 행복하다/                      아빠, 엄마와 자전거 같이 타고 있을 때 표정 등을                      표현함</p>
5회기	<신기한 나뭇잎을 붙이고 투명인간이 된다면> 투명인간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표현함	 <p>하루 종일 놀기, 영어 학원 오래 있기,                      가만히 있기, 소리 지르기,                      괴롭힌 사람 창피하게 만들기, 나쁜 사람 패기,                      동생 때리기, 힘든 사람 도와주기,                      공부 잘하기 등</p>
6회기	<나의 바람이 이루어진다면> 나의 바람이 이루어질 때 어떤 마음일지를 표현함	 <p>하늘을 날아가는 기분,                      웃고 있는 표정,                      가슴이 뻥 뚫린 통쾌함,                      기분 좋아요 등</p>

<p>7회기</p>	<p>&lt;잘 하려면&gt; 각자 자신이 잘 하고 싶은 것을 찾고, 그것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표현함</p>		<p>잘 하고 싶은 것: 공부, 발표, 만들기, 달리기, 피구, 그림 잘 그리고 싶다 등 잘 하려면: 연습하기, 예습·복습하기, 기억하기 등이라고 함</p>
<p>8회기</p>	<p>&lt;용기 처방전&gt; 자신이 잘 하고 싶은 것을 해내도록 자신에게 주는 용기 처방전을 쓰고 처방약봉지를 만들</p>		<p>자신감, 당당함, 연습할 수 있는 노력, 게임을 적게 하고 공부하는 노력 등이 자신에게 필요한 용기 처방이라고 함</p>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희망하며**

❖ 놀이상담 프로그램은 길어야 8회기, 4주 동안 진행된다.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이 기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하였다고 자랑하고 싶다.

- A아동: 뽕튀기를 앞에 두고 플라스틱 나이프로 도마를 반복해서 찌고 있는 아이에게 강사가 “뭘 할지 생각이 안 나나 보구나! 생각 안 날 수도 있지. 생각하면 그때 해 봐! 선생님이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 줘!”라고 전하며 아이 스스로 시작하도록 강사가 기다려 주었다. 잠시 후, 아이는 뽕튀기를 지퍼백에 넣고 주먹으로 두들기고 부수며 자신의 감정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점차 표정이 밝아졌다. 아이는 불편한 감정을 표현한 후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됨을 경험으로 배운 것이다.

- B아동: 한 아이가 발표하고 싶어 손을 들었는데 다른 아이가 먼저 발표하자 울기 시작하였다. 선생님이 어떻게 해 주면 좋겠냐고 하자, “그냥 놔둬 주세요!”라고 하여, “그래, 그럼 선생님이 그냥 둘게!”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 상황이 불편했던 돌봄전담사 선생님이 우는 아이를 데리고 나갔다가 잠시 후에 아이와 함께 돌아와서 강사에게 아이를 안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강사는 아이에게 “선생님이 안아줄까?”라고 물었고, 아이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줘도 돼요!”라고 하여, 강사는 “네가 우는 게 선생님 때문이야?”라고 물어보았고 아동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럼, 친구들 때문이야?”라고 묻자, 아동은 “아니요. 이건 제 문제예요. 그냥 모른 척해 주세요!”라고 하여 그냥 두었더니 아이는 스스로 울음을 그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 아이는 속상한 마음에 울게 되었지만, 자신의 속상함을 자신의 문제로 수용하고 스스로 자신의 속상한 감정을 해결한 것이다.

- C아동: “오늘 열심히 할 거예요!”라는 아동의 말에 강사가 “그래? 그럼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라고 물어보자, 아동은 “잘 만들어야 하는 줄 알고 열심히 안 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아동은 잘 하는 것과 열심히 하는 것의 차이를 깨우치고 잘 하기 보다는 열심히 하기를 선택, 결정한 것이다.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자원은 이미 우리 아이들이 가진 내적 능력이지만, 이것을 밖으로 이끌어내어 주는 것은 상담전문가(프로그램 진행강사)의 전문적 기술이다. 아이들이 놀이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익힌 자신의 생각과 감정, 욕구를 상대에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대화기술은 성인이 되어서도 꼭 필요한 대인관계 기술이다. 아이들이 배운 관계기술을 좋은 습관으로 유지해 간다면 분명 행복한 성인, 건강한 사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경험하는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비록 불편한 감정이라도 억압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와 관련하여 감정을 표현하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희망한다.





## 영천여고 에듀키드 예비교사들의 '사랑 Dream' 초등돌봄 지원 활동

• 영천여자고등학교 에듀키드 지도교사 | 손 호 주



### 영천여자고등학교 허영선 교장선생님 인사말

❖ 올해로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본교 학생들은 그 역사만큼 선생님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깊고 교사가 되고자 열망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이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지역 아동들의 행복한 성장을 돕자는 훌륭한 취지에서 '에듀키드(EDUKID)'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이 교장으로서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일반적인 교육 동아리 활동은 교육 문제에 대한 토의나 수업 방식 구상에 그치기 쉬우나, 우리 '에듀키드' 학생들은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맞닥뜨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예비교육자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좀 더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더욱 실력을 쌓아 알차고 새로운 시도를 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역력합니다. 이 학생들의 활동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고, 또 더 많은 예비 교사들이 좋은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동아리 '에듀키드' 란?

❖ 에듀키드는 education과 kid가 합쳐진 말로, 미래의 교육자를 꿈꾸는 학생들이 교육적 활동을 함께 하기 위해 모인 동아리입니다. 교사의 꿈을 키워나가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현 교육 실태에 대해 파악하고 교육적 방안에 대해 구상하며 수업을 계획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 현장에 참여하여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영화초등학교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돌봄교실의 아이들과 매주 만남을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의미 있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 돌봄교실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 같은 에듀키드 학생들

❖ 돌봄교실의 아이들은 항상 학교에서 함께 지내는 선생님들이 아닌 새로운 선생님들이 매주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에듀키드 방문일이 늘 기대가 됩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 고등학생들은 학교의 선생님들보다 연령대가 낮고, 형제자매와 나이가 비슷하기에 마음의 거리가 좀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매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도 교육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에듀키드 학생 1명당 1~2명의 아이와 함께 짝꿍이 되어 가까이에서 한 명도 빠짐없이 수업에 참여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돌봄교실 아이들에게는 즐겁고 참신한 수업을 선물하는 산타클로스 같은 학생들이 찾아오는 것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 에듀키드 학생들에게 자부심이 되는 교육 활동

❖ 일반적으로 동아리 활동이라 하면 교육과 관련된 책을 읽거나, 현 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토의를 하거나, 수업을 준비하여 동아리원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 등의 활동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에듀키드 학생들은 이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실제 다양한 교육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아리 활동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동아리원들은 모두 이 활동이 자신의 진로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입을 모으기도 합니다. 또한 동아리원들끼리 모여 머리를 맞대고 수업을 직접 계획하고 진행에 대해 여러 의견들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협동심과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습니다. 학생이자 교사의 입장에서 모두에게 양질의 시간이 되도록 항상 고민 하면서 초등학교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돕고자 노력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구상한 수업을 돌봄교실 현장에 적용한 후에는 오늘 수업은 어땠는지 돌봄교실 선생님께도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받으며 활동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학생들에게는 피와 살이 되는 경험입니다. 이와 같은 시간들은 학생들의 교육적 역량을 길러주게 되고 에듀키드의 자부심이자 자신감의 원천이 됩니다.

## 수업활동 계획 및 내용

### 1 동화를 활용한 교육

가. 다문화 교육을 접목한 동화 구연

‘미운 오리 새끼’를 읽고 ‘친구를 괴롭히지 않는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는다.’ 등의 다문화 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실시 → 하드보드지, 펠트지 등을 이용한 동화책 제작

나. 양성평등 교육을 접목한 동화 결말 바꿔 쓰기

‘종이 봉지 공주’를 읽고 ‘잠자는 숲속의 공주, 백설 공주’의 결말 바꿔 쓰기. 양성평등의 사례들과 중요성 전달

### 2 바른 말 사용 교육

바른 말, 고운 말의 중요성 교육 → 서로에게 칭찬하는 글을 쓴 롤링페이퍼 제작

쉽게 키울 수 있는 작은 식물 준비, 아이들에게 하루 3번 예쁜 말을 실천하도록 지도하기. 바른 말 사용과 더불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활동

### 3 시장 놀이를 통한 산수 수업

물건을 전시해놓고 지폐 모형을 각각 제공하여 스스로 물건을 구매하고 가격을 계산해서 돈을 지불하는 등 덧셈/뺄셈 개념 및 경제 관념을 갖게 하는 활동

### 4 전통 놀이를 통한 체육 수업

전통 음식, 놀이, 악기, 명절, 문화유산 등에 대해 소개하고 윷놀이, 공기놀이, 고무줄 놀이, 구슬치기, 강통 차기와 같은 전통 놀이를 함께 함



### 돌봄교실 담당 교사와의 인터뷰

#### 1 에듀키드 활동에 대한 돌봄교실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처음에는 돌봄교실 학생들이 초등학교 1-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고등학생들과 의사소통이 잘 될 수 있을까, 고등학생들도 어린 학생들의 눈높이를 잘 맞춰서 교육봉사를 할 수 있을까 우려되는 점들이 많았다. 하지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이들은 너무나도 금세 학생들과 친해졌고, 학생들 역시 준비한 수업을 잘 진행해주었으며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줘서 대견했다. 무엇보다 2:1 멘토/멘티 활동으로 더 세심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실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점이 의미 있다. 아이들이 이 시간을 무척 좋아했고 매번 언니, 누나가 언제 오냐며 물어볼 정도로 교육봉사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 2 에듀키드 동아리 활동의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우선 교육자를 꿈꾸는 동아리원들에게는 아주 값지고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돌봄교실에서 간접적으로 그 꿈을 실현해보는 경험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막연했던 점들을 해소하고 추억으로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동아리원들이 아이들을 대할 때 항상 미소를 띠고 친절하게, 그리고 자신보다 어리지만 항상 예의를 갖춰 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사랑과 배려와 존중을 받은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졌을 것이고 매주 한 번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행복의 감정을 전파해 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 3 에듀키드 학생들이 다음 수업 때 했으면 하는 활동이 있다면 무엇인가?

손을 많이 사용하는 만들기 수업을 통해 조금 더 유대감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거나, 단체 게임 등을 통해 모두가 협력하고 화합하며 즐길 수 있게, 더욱 풍성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동아리원들의 후기 및 느낀 점



❖ “아이들과 매주 함께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애정도 깊어지고 제가 직접 해준 가르침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 한 아이에게 의미 있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뿌듯했습니다.”

“현재 초등학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려워서 어떤 교육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막막했으나 아이들과 직접 소통 해보니 어떤 것이 더 좋은 교육인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아이들이 제가 하는 행동과 말투를 가끔 따라 하는 모습을 보며 조심스럽고 모범적인 태도로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대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벌써 아이들과 정도 많이 들고 가족 같아서 아이들을 못 보는 날에는 종종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직접 구상한 수업을 선생님께 바로 피드백을 받아 다음에는 어떤 수업을 할까, 어떻게 진행하면 아이들이 좋아 할까,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같이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로 교육에 대한 가치관, 문제점들을 이야기하고 직접 아이들에게 수업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고 내 꿈에 한 발짝 다가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꿈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동아리 활동이 진로체험 활동과도 겹치니 경험이 쌓여 갈수록 제 꿈에 대해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교사를 꿈꾸지는 않지만, 아동 범죄 심리학자가 되고 싶은 저에게는 아동들의 심리나 이 나이 때에는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슬프고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아이들만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매주 돌봄교실에 가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설레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활동할 것입니다.”

## ✎ 주요 언론기사

● 최근 3개월 동안 언론에 게재된 방과후학교·돌봄과 관련한 중요 기사를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 (경기) 초중고생 'FUN-FUN한 방과후 학교'... 오산시 마을 연계 기획

(경인일보, 최규원 기자 - 2021. 04. 14.)

- 경기 오산시,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지역 연계 특화지구 사업 FUN-FUN한 방과후 학교를 운영
- 'FUN-FUN한 방과후 학교'는 마을교육공동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코로나19로 학교 및 마을과 단절된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마을과 연계해 방과 후 시간을 활용하도록 기획
- 특히 관내 학습 취약계층 자녀(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학습튜터'는 관내 거주 대학생 및 오산시 장학금 수혜대학생들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
- 출처 :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414010002744>

### ● (세종) 세종 보람중, '꿈자람배움터' 방과후 프로그램 (충청일보, 정완영 기자 - 2021. 05. 02.)

- 세종 보람중, 코로나19로 위축된 학교 방과후학교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용 방안을 모색해 학생 개인의 취미를 찾고 소질을 기르기 위한 꿈자람 배움터(소인수 문화예술)방과후학교 운영
- 음악 프로그램 7개(피아노반, 바이올린반, 첼로반, 클라리넷반, 플루트반, 통기타반, 전자악기반), 미술 프로그램 2개(서양화반, 만화반) 총 9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1:1 개별 맞춤 수업으로 운영
-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교내 문화예술 공간을 활용해 예술동아리와 어우러진 다양한 상시공연과 버스킹 및 전시를 활성화하고 있어, 방과후 프로그램이 특색있는 학교 문화 형성에 이바지
- 출처 : <http://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54367>

### ● (경기) 시흥시, '차일드 퍼스트(Child-First) 시흥' 수립... 초등돌봄 특성화 추진

(아주경제, 강대웅·송인호 기자 - 2021. 05. 17.)

- 경기 시흥시, '차일드 퍼스트 시흥'을 주제로 초등돌봄사업 통합과 특성화 본격 추진
-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초등학교 휴교 및 온라인 재택 수업으로 돌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 증가,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초등돌봄 사업 추진 계획
- 초등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아이누리돌봄센터 6개소를 12개소로, 돌봄나눔터 8개소를 14개소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1개소 추가 확충 예정
- 시는 '시흥형 초등돌봄 종사자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인 인력 보수 교육을 추진하며 아이들과 학부모의 요구사항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초등돌봄 모델을 개발하여 이용자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공적 돌봄 강화 예정
- 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210517103444458>

### ● (충남) 충남 공적 돌봄 정책 컨트롤타워 설립 '첫발' (아시아투데이, 김관태 기자 - 2021. 06. 07.)

- 충남도의회는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
- △돌봄공동체 형성 계획 수립 △충남형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센터 구성·운영 △돌봄협의회 설치·구성 등이 명시
- 통합지원센터는 사업주체별로 다원화된 공적 돌봄 정책을 일원화하고 관련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향후 지역·사업별 돌봄 교실·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아동돌봄 정보 통합 플랫폼'서비스도 구축·제공할 예정
- 출처 : <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10607010003547>

• **(대전) 대전대, 대전형 아이돌봄 플랫폼 ‘대전아이’ 런칭**

(충청타임즈, 한권수 기자 - 2021. 06. 10.)

- 대전대, 대전시 다함께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손·오·공 (손에 손잡고·오순도순·공들여 함께 키운다, 센터장 김혜영) 이 대전형 아이돌봄 플랫폼 ‘대전아이(daejeoni.or.kr)’를 개발
- ‘대전아이’는 돌봄 기관 이용자의 정보 제공은 물론 예약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 돌봄MAP과 체험MAP(아이들과 체험할 수 있는 장소 및 공간 안내), 돌봄SOS(위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병원, 약국 및 기관 안내) 등의 기능을 통해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가능 공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어플리케이션도 제작
- 출처: <http://www.cc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660791>

• **(고용노동부) (하반기 달라지는 것)방관원·방과후 강사 등 특고 12개 업종 고용보험 적용**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 2021. 06. 28.)

- 고용노동부,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표
-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면서 하반기부터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 강사 등 12개 업종은 고용보험 적용 대상
- 다만 노무제공계약상 월 평균 소득 80만원 미만인자와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적용 제외
- 출처: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54791>

• **(울산) 울산 강남청, 초등 농어촌방과후학교 지원 차량 안전 점검**

(베리타스 알파, 신승희 기자 - 2021. 07. 02.)

- 울산 강남교육지원청, 7월 1일 울주군 방기초에서 농어촌 방과후학교 지원차량 안전 점검을 실시
- 차량 점검에서는 학교별 차량 운영 계획, 차량 보험 가입 여부, 운전자·운전자·동승도우미 안전교육 이수 여부, 차량 정기안전점검 실시 유무를 확인
- 간접시계장치·하차확인장치 등 학생 안전을 위한 차량 장치의 원활한 작동 여부 점검, 차량에 직접 동승하여 학생들의 승하차 장소 및 운전자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모니터링
- 출처: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75154>

• **(전남) 비대면 온라인수업을 대비한 디지털 역량 강화 방과후학교 강사연수 운영**

(전남인터넷신문, 김상봉 기자 - 2021. 07. 10.)

- 전남 장흥교육지원청, 관내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사단법인 에듀펀플러스)과 연계하여 방과후학교 강사 대상 비대면 온라인수업을 대비한 디지털 역량강화 강사연수를 운영
- 연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하여 농촌지역 방과후학교 운영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강사역량 교육을 진행
- 비대면 온라인수업에 주로 사용되는 ‘줌(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 운영 방법, 강의실 개설, 화면 공유, 조별 회의나 활동을 위한 소규모 강의실 개설 등 실시간 쌍방향 비대면 수업을 위하여 ‘줌(ZOOM)’ 프로그램을 직접 실습해보는 것을 중심으로 연수 구성
- 출처: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06061>

## 주요 연구 결과

### ● 방과후학교·돌봄에 관한 주요 연구 결과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 **연구보고서** : 학교돌봄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정덕희
- **발행기관** :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그 동안 온종일돌봄이나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는 몇몇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으며 특히 초등돌봄교실의 운영체계를 어떤 방향에서 확립하고 운영할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교원, 돌봄전담사, 학부모, 교육청과 지자체 관계자 등)의 요구를 분석하여 초등돌봄 운영체계의 개선방안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 • 주요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학교 구성원(교원 및 학부모, 돌봄 전담사), 교육청 관계자, 돌봄관련 선행 연구자 및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집단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포럼 형식의 협의회를 통해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토론하여 지역특색에 맞는 다양한 돌봄 모형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학교돌봄의 제도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①현행체제 보완형(현행 체제를 약간 개선), ②교육청 주도형(학교는 돌봄 공간을 제공하나 인력과 시설 관리 등은 모두 교육청에서 담당), ③지자체 주도형(돌봄공간으로서 학교 교실을 빌릴 뿐 시설부터 인력 관리, 프로그램 운영까지 모두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주도)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였으나 지역 실정, 특히 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 규모가 달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하나의 모형을 전국적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게 모형을 채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돌봄'에서 '지역사회 방과후활동 생태계'로 전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생태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을 한다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하였다.



- **일반논문** : 초등돌봄교실은 누가, 어떠한 환경에서, '왜' 참여하는가?
- **저자** : 이성희, 조선미
- **간행물** : 교육행정학연구 제39권 제1호, 한국교육행정학회, 2021

• **주요내용**

이 연구는 초등돌봄교실 정책에 대한 ‘학부모의 (비)참여’ 측면을 중심으로 “초등돌봄교실은 누가, 어떠한 환경에서, 왜 참여하는가? (혹은 참여하지 않는가?)”란 연구문제에 답하기 위해 실재론적 정책평가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초등돌봄교실 참여는 상대적으로 가구소득이 낮거나 읍면 거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거주지역이 공간적으로 분화되어 있는 사회적 맥락이 돌봄이용 방식에 반영된 것으로 보였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참여 학부모 중에 똑같은 맞벌이 가정이라 할지라도,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의 실질적 참여 목적은 기초생활 및 교육돌봄(저소득층) 대(對) 안전돌봄(중산층)이라는 계층별 분화가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부모는 초등돌봄교실정책에 대해 ‘공부보다는 보살핌’을 선호하는 공통된 인식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것이 30-40대 초등학생 저학년 학부모의 ‘베타맘’ 담론에 기초한 바람직한 부모 역할에 대한 인식의 동질성에 의해 발생한다고 추론했다.



- **일반논문** :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의 방과 후 돌봄 교실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요구
- **저자** : 이재희, 김대욱
- **간행물** : 문화기술의 융합 제6권 제3호,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0

• **주요내용**

이 논문은 문재인 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의 의제설정과정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Cobb등의 의제설정유형론에 기초할 때, 이 정책의 의제설정과정은 정부주도형에 속하는지 혹은 여론을 기초로 한 의제설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외부주도형에 속하는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자료는 ‘온종일 돌봄 정책’이 발표된 2018년부터 2020년 11월 6일 돌봄전담사의 파업까지의 정책 사건과 관련한 선행연구와 정부의 보도자료, 기사 등 언론자료, 각 이해관계 단체들의 성명서 등의 문헌자료이다. 연구 결과, ‘온종일 돌봄 정책’의 의제설정과정은 Cobb등의 의제설정유형론에 따를 때 대체로 정부 주도의 ‘동원형’의 특징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의제설정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개혁안 추진 관행을 탈피하고 교육현장으로부터의 요구와 문제를 더 고려하며 이와 관련한 관계집단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도모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 **일반논문** : 지역사회 기반 초등돌봄 사업의 현황과 과제: 온종일 돌봄 생태계구축 선도사업 참여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김은정, 홍진주, 정세미, 김현진
- **간행물** : 인문사회21 제12권 제2호,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 • 주요내용

본 논문은 정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온종일 돌봄 생태계구축 선도사업’에 대한 현황 파악과 다각적 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기반 초등돌봄 사업의 발전방안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해당 사업에 참여 중인 8개 지역 초등돌봄 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특성 및 환경에 따른 사업의 차이, 서비스 공급 주체에 따른 운영방식의 차이, 지역여건과 사업 규모에 따른 공간 운영 방식의 차이, 이용자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 내용의 차이, 지역별 운영인력의 역량 차이가 파악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①초등돌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역의 특성, 특히 아동과 부모가 거주하는 실직적인 생활권 특성에 기반한 초등돌봄 체계 구축, ②이용자의 다양한 욕구 수준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돌봄 콘텐츠 제공, ③초등돌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간 확보 및 활용 대안, ④전문성 있는 초등돌봄 인력 확보와 이들의 교육을 위한 지원, ⑤지역사회 거버넌스 및 돌봄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밀착형 접근을 요구하였다.

## 주요 입법동향 및 정보

- 최근 3개월 간 제·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방과후학교·돌봄 관련 입법활동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 입법동향 요약

#### A. 시행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등 초등 돌봄 관련 조례 3건, 「전라북도 정읍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등 온종일 돌봄 관련 조례 3건, 「경기도 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등 다함께돌봄 센터 관련 7건, 「충청남도 논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등 지역아동센터 관련 조례 13건,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등 기타 방과후활동·돌봄 관련 조례 8건이 제·개정되었습니다.

#### B. 진행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하여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일부 개정법률안과 감염병환자등이 입원치료 또는 시설치료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녀의 돌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의 지도방법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아이돌보미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대상에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려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강원도 횡성군 다함께돌봄 운영에 관한 조례」등 다함께돌봄센터·아이돌봄에 관한 조례가 제·개정되었습니다.

## ◎ 입법동향 상세

## A. 시행

## 1. 자치입법

## 가. 초등 돌봄 관련 조례

지역	조례명	소관	일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청소년과	(일부개정) 2021.06.04
전라남도	광양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일부개정) 2021.06.04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가족과	(제정) 2021.05.14

## 나. 온종일 돌봄 관련 조례

지역	조례명	소관	일시
전라북도	정읍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일부개정) 2021.06.11
경상남도	산청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보육과	(일부개정) 2021.04.21
경상남도	김해시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보육과	(제정) 2021.04.09

## 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조례

지역	조례명	소관	일시
경기도	광주시 다함께돌봄 지원 조례	아동복지과	(제정) 2021.06.28
강원도	평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가족복지과	(제정) 2021.05.28
전라북도	김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성가족과	(제정) 2021.05.17
경기도	수원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보육아동과	(일부개정) 2021.05.12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제정) 2021.05.11
전라북도	순창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민복지과	(일부개정) 2021.04.15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서구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제정) 2021.04.12

라. 지역아동센터 관련 조례

지역	조례명	소관	일시
충청남도	논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과	(제정) 2021.06.10
전라남도	완도군 아동급식 지원 조례	여성가족과	(제정) 2021.06.09
강원도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복지정책과	(일부개정) 2021.06.04
충청북도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가족행복과	(일부개정) 2021.05.31
경기도	양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보육과	(일부개정) 2021.05.31
강원도	영월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일부개정) 2021.05.28
경기도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아동돌봄과	(제정) 2021.05.20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어르신청소년과	(일부개정) 2021.04.29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여성가족과	(일부개정) 2021.04.19
전라북도	김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제정) 2021.04.14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과	(일부개정) 2021.04.12.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대덕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일부개정) 2021.04.09
경상남도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보육과	(일부개정) 2021.04.09

마. 기타 방과후활동·돌봄 관련 조례

지역	조례명	소관	일시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가정복지과	(제정) 2021.06.07
경기도	경기도 아동돌봄공동체 활성화 조례	공동체지원과	(제정) 2021.05.20
전라남도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제정) 2021.05.18
경기도	가평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행복돌봄과	(제정) 2021.05.12
경기도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과	(제정) 2021.05.07
전라남도	무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주민생활과	(제정) 2021.04.19.
충청남도	홍성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가정행복과	(제정) 2021.04.15
충청남도	청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복지정책과	(제정) 2021.04.09

**B. 진행**

**1. 국회입법**

법령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관	일시
<p>「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2인)</p>	<p>[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법에서는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 시설에 입소시키고, 아동학대를 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군·구 조례로 복수의 시·군·구에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입소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부족한 실정으므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li> </ul>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하여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45조제4항 신설).</li> </ul>	국회 교육위원회	발의 2021.1.26.
<p>「아이돌봄 지원법」 (조명희의원 등 11인)</p>	<p>[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유치원·초등학교 등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스스로 비대면 원격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 아이돌보미로 하여금 아이들의 비대면 원격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li> </ul>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의 지도방법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아이돌보미의 역량을 강화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li> </ul>	여성가족위원회	발의 2021. 4. 19. 최근 심사 2021. 4. 20.

<p><b>「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b></p> <p>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4인)</p>	<p>[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등에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감염병의심자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시설 치료 등을 받게 할 수 있음. 그런데, 부모 등의 입원치료 등으로 그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자녀에 대한 보호 조치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li> </ul>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병관리청장 등은 감염병환자등이 입원치료 또는 시설치료로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녀의 돌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1조제5항 신설).</li> </ul>	<p>보건복지위원회</p>	<p>발의 2021. 2. 5.</p> <p>최근 심사 2021. 4. 26.</p>
--	--	----------------	---

2. 행정입법

법령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관	일시
<p><b>「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b></p> <p>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	<p>[제·개정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지사 등에 대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고,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지 아니한 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도록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법률 제17810호, 2020.12.29. 공포, 2021.12.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li> </ul> <p>[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대상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함(안 제12조제2호)</li> </ul>	<p>식품의약품 안전처 (식생활 영양 안전정책과)</p>	<p>2021. 4. 7. ~ 2021. 5. 18.</p>

3. 자치입법

지역	조례명	소관	일시
강원도	횡성군 다함께돌봄 운영에 관한 조례	교육복지과	2021.5.7. ~2021.5.27.
강원도	화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주민복지과	2021.4.22. ~2021.5.12.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아동과	2021.4.16. ~2021.5.6.

## 방과후학교 강사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안내

### • 운영 목적

- 방과후학교 강사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
- 방과후학교 강사 역량 강화를 통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의 질 제고

### • 교육과정

- 기본과정 (15차시), 심화과정 (7차시) 중 1과정 또는 2과정 자유선택 (동일 기수에 2과정 신청 가능)

### • 연수기간

- 10기수 '21년 4월 ~ 11월 (총 10기)

기수	신청기간	연수기간	이수증 출력
1	'21.04.30(금) - 05.04(화)	'21.05.04(화) - 05.27(목)	'21.05.28(금)
2	'21.05.06(목) - 05.18(화)	'21.05.18(화) - 06.10(목)	'21.06.11(금)
3	'21.06.03(목) - 06.15(화)	'21.06.17(목) - 07.08(목)	'21.07.09(금)
4	'21.06.17(목) - 06.29(화)	'21.07.01(목) - 07.22(목)	'21.07.23(금)
5	'21.07.15(목) - 07.27(화)	'21.07.29(목) - 08.19(목)	'21.08.20(금)
6	'21.07.29(목) - 08.10(화)	'21.08.12(목) - 09.02(목)	'21.09.03(금)
7	'21.08.26(목) - 09.07(화)	'21.09.09(목) - 09.30(목)	'21.10.01(금)
8	'21.09.09(목) - 09.23(목)	'21.09.23(목) - 10.14(목)	'21.10.15(금)
9	'21.10.07(목) - 10.19(화)	'21.10.21(목) - 11.11(목)	'21.11.12(금)
10	'21.10.21(목) - 11.02(화)	'21.11.04(목) - 11.25(목)	'21.11.26(금)

※ 이수기준 및 이수증 출력: 진도율 80% 이상, 설문 응답

• 연수내용

1. 기본과정 15차시

○ 방과후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

차시	차시명
1	방과후학교의 이해와 방과후학교 강사의 자세
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계획
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실제(교과)
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실제(특기적성 I)
5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실제(특기적성 II)
6	초·중등 학생의 발달적 특성
7	학생의 문제행동별 지도 방법
8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9	교직원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
10	안전한 방과후학교(1)-사전예방
11	안전한 방과후학교(2)-사후조치
12	방과후학교 우수강사 사례(1)
13	방과후학교 우수강사 사례(2)
14	초등돌봄교실의 이해
15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실제

2. 심화과정 7차시 운영

○ 방과후학교에 대해 이해하고, 프로그램 계획 및 성공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 제고를 위한 과정

차시	교과목
1	방과후학교와 진로교육
2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의 이해
3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해
4	창의적 교수법의 이해(1) - 개념과 사고 전략 -
5	창의적 교수법의 이해(2) - 토의·토론 -
6	창의적 교수법의 이해(3) - PBL -
7	리포형성과 주의집중



## 초등돌봄전담사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 안내

### • 운영 목적

- 초등돌봄전담사 전문성 신장 기회 제공
- 초등돌봄전담사 역량 강화를 통한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질 제고

### • 교육과정

- 공통과정 15차시, 선택과정 6차시 ①안전 ②놀이 ③상담 ④아동이해(총 4종)

### • 연수기간

- 10기수 '21년 4월 ~ 11월 (총 10기)

기수	신청기간	연수기간	이수증 출력
1	'21.04.30(금) - 05.04(화)	'21.05.04(화) - 05.27(목)	'21.05.28(금)
2	'21.05.06(목) - 05.18(화)	'21.05.18(화) - 06.10(목)	'21.06.11(금)
3	'21.06.03(목) - 06.15(화)	'21.06.17(목) - 07.08(목)	'21.07.09(금)
4	'21.06.17(목) - 06.29(화)	'21.07.01(목) - 07.22(목)	'21.07.23(금)
5	'21.07.15(목) - 07.27(화)	'21.07.29(목) - 08.19(목)	'21.08.20(금)
6	'21.07.29(목) - 08.10(화)	'21.08.12(목) - 09.02(목)	'21.09.03(금)
7	'21.08.26(목) - 09.07(화)	'21.09.09(목) - 09.30(목)	'21.10.01(금)
8	'21.09.09(목) - 09.23(목)	'21.09.23(목) - 10.14(목)	'21.10.15(금)
9	'21.10.07(목) - 10.19(화)	'21.10.21(목) - 11.11(목)	'21.11.12(금)
10	'21.10.21(목) - 11.02(화)	'21.11.04(목) - 11.25(목)	'21.11.26(금)

※ 이수기준 및 이수증 출력: 진도율 80% 이상, 설문 응답

• 연수내용

1. 공통과정 15차시

◦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과정

차시	교과목	차시	교과목
1	초등돌봄교실의 이해	9	문자는 내 친구
2	초등돌봄전담사의 역할	10	독서활동
3	학교·지역사회연계	11	창의성과 놀이
4	아동 특성	12	폭력 예방 및 대처
5	아동 지도방법	13	갈등 및 스트레스 관리
6	아동 인권	14	초등돌봄교실의 환경 구성
7	가정과의 관계	15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8	아동 놀이 개론		

2. 선택과정1 6차시

◦ 초등돌봄교실에서의 아동 이해와 활동

차시	교과목
1	학생의 발달과 의사소통 기법
2	성격유형에 따른 대처방법(문제행동지도)
3	창의성을 높이는 놀이 프로그램
4	꿈을 키우는 독서지도
5	스토리텔링 기법
6	부모상담의 기법과 이해

4. 선택과정3 6차시

◦ 초등돌봄교실에서의 놀이

차시	교과목
1	신체활동 통합놀이
2	주집중놀이
3	놀이수학
4	협력놀이
5	창의 미술
6	재미있는 과학놀이

3. 선택과정2 6차시

◦ 초등돌봄교실에서의 안전

차시	교과목
1	시설물 안전관리
2	급·간식 안전 및 화재 안전
3	안전한 하교 지도
4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5	돌봄활동 중 안전지도
6	사고대응과 학교안전공제제도

5. 선택과정4 6차시

◦ 초등돌봄교실에서의 안전

차시	교과목
1	아동상담의 이해
2	아동상담 과정
3	집단상담1
4	집단상담2
5	놀이치료
6	독서치료



## <방과후학교·돌봄 온라인 뉴스레터> 통권 76호 원고 모집

-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에서는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의 정책, 운영현황, 성과, 우수사례, 행사안내 등에 관한 정보공유와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를 목적으로 <방과후학교·돌봄 온라인 뉴스레터>를 웹진 형식으로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의 현장 이야기를 보다 다양하게 다루고자 뉴스레터에 수록될 원고를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다음 호 게재를 위한 원고 제출기간은 2021년 9월 3일(금)까지이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1 자격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유관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참여 학생 및 학부모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학계전문가 등

### 2 분야

	항목	내용
1	전문가칼럼	•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관련 전문가 의견
2	현장 속 방과후학교·돌봄	• 각 지역 및 학교의 방과후학교·돌봄 운영 우수사례 소개 • 방과후학교 감사 및 초등돌봄전담사 후기 등

### 3 제출방법

- 이메일(gohj@kedi.re.kr) 제출

### 4 문의

- 한국교육개발원 방과후돌봄연구팀(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 고현진 연구원 043-530-9556

### 5 기타

- 제출된 원고는 내부 심사를 통해 선정
- 선정된 원고는 투고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
- 선정된 원고의 투고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